

난임 유발원인 난관 문제일 땐 복강경 수술이 큰 도움

건강 바로 알기 난임증

정효영 시엘병원 원장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최대 관심사가 돼 버린 요즘, 우리는 주위에서 아기를 갖지 못한 부부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 난임은 부부가 숨겨야 할 사생활이 아니라 정확한 검사와 체계적인 치료를 통해 극복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인식돼야 한다.

◇난임증이란?=정상적인 부부가 한 달 이내에 임신될 확률은 약 10~20% 정도이며, 1년 이내 자연임신 성공률은 약 80%로 알려져 있다. 난임이란 인위적으로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졌는데도 1년 이내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 부부 10쌍 중 한 두 쌍이 난임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해와 스트레스, 초혼 연령의 증가로 난임환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개 난임 원인으로는 크게 남성요인과 여성요인으로 나뉜다.

남성난임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비뇨기계염증이나 수술, 정관폐색, 당뇨병 또는 소년기 고환 정맥류와 음낭부위나 지속적인 고열에 노출되는 환경 등을 들 수 있

부부 10쌍 중 한 두 쌍 난임 경험 ... 갈수록 증가 추세
남성요인 땐 검사 방향 달라져 ... 첫 방문 때 부부동반을

다. 이외 선천적 무정자증이 있다. 또 호르몬 이상에 의한 내분비학적 원인의 난임도 있다.

여성 난임의 요인으로는 난관, 자궁, 자궁경관, 복강 내, 면역학적 요인에 의한 난임과 원인불명으로 나눌 수 있다. 난관의 운동성을 통해 난자와 정자가 이동하는데, 난관의 통과장애로 인해 임신하지 못하는 사례가 전체 난임의 절반 정도이다. 둘째로 정상적인 수정이후 자궁 내 요인(자궁내유착, 자궁내막폴립, 자궁근종, 자궁기형, 자궁내막염증) 탓에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착상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셋째, 배란기에 자궁경부에서 맑고 풍부한 점액이 분비돼 정자가 통과하는데 점액분비가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로 난임의 1%를 차지한다. 넷째, 나팔관이 주변이나 골반내 다른 장기와 서로 붙어서 임신이 되지 않는 복강 내 요인에 의한 난임이 있다. 다섯째, 면역학적 요인으로 정상 남성의 정액이 여성의 몸속으로 들어가 항체를 형성해 임신을 방해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은 원인불명 난임으로 난임 원인 중 20~40%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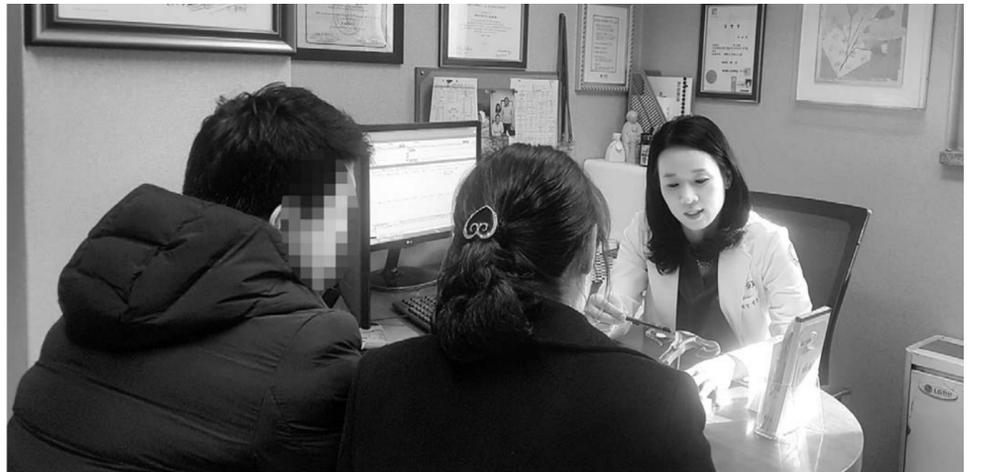
◇난임증의 진단=난임환자를 상담하다 보면 난임의 결정적인 원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환자들 많이 있다. 따라서 첫 방문시에 남편을 동반하는 것이 좋다. 남성요인이 밝혀지면

검사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에 검사해야 한다.

여성요인의 경우에는 생리 시작일부터 3일째가 되는 날 기초호르몬 검사를 통해 생리주기가 일정하고 배란이 잘 되고 있는지, 난소의 기능은 좋은지, 혹은 폐경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기본적인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정자와 난자, 수정란의 이동통로인 나팔관과 자궁이 잘 소통되는지 확인하는 자궁난관 조영술을 하게 된다. 한쪽 난관이 막힌 경우에는 배란조음파를 통해 부부관계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양쪽이 막힌 경우에는 복강경 수술을 통해 나팔관을 뚫어 주거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시험관 아기시술을 권한다.

이외에 자궁에 좋지 못한 병변이나 유착이 있으면 자궁경검사나 복강경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다. 복강경검사는 개복수술에 비해 적은 피부 절개를 통한 최소 침습적인 시술이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 수술부위의 조직손상이나 유착이 적어 수술 후 유병률이 적다. 또한 회복시간이 빨라 조기퇴원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흉터가 작아 미용효과도 있기 때문에 개복수술을 대체하고 있다.



정효영 시엘병원 원장이 임신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시엘병원 제공〉

◇난임증의 치료=남성 난임치료는 정자 형성 장애의 경우 호르몬 요법과 인공 수정 등이 있다. 또한 요도나 정관이 막히거나 좁은 경우 항생제 치료나 수술로 해결할 수 있으며, 심인성 발기불능은 내과나 신경정신과적 정신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여성 난임치료는 배란장애치료, 무월경, 산발성 무배란증, 다낭성 난포 증후군 등 대개 내분비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호르몬 요법을 통해 치료될 수 있다. 난관 이상이 생기는 난임치료는 난관복원술이 대표적이며 수술 후에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시험관아기 시술을 한다. 특히 난관 요인의 난임의 경우 복강경 수술로 난관을 교정하거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체외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확하고 빠른 치료판단을 할 수 있다. 자궁이상에 의한 난임은 자궁기형의 경우 호르몬제 투여나 근중제거수술로, 자궁 발육부전의 경우 난소호르몬을 투여해 난임을 치료할 수 있으며, 자궁내막염의 경우 항생제 투여 후 호르몬제에 의한 인위적 월경을 유발해 치료할 수 있다. 최근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를 보면 임신

대에 결혼을 했더라도 아기를 갖기 위한 노력은 생식 능력이 떨어지는 30대 중반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이 마음처럼 쉽지가 않다. 늦은 나이에 아기를 갖는 데는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완전한 난임은 없다. 단지 남들보다 늦게 아기가 생길 뿐이다.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희망을 버리지 말고 가급적 빨리 난임 전문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중국 칭다오에서 의료관광 설명회

현지 대형병원서 ... 기업인 등 관심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삼용)이 의료시장 개척과 의료 교류협력을 위해 최근 이틀간 중국 칭다오에서 의료관광설명회를 가졌다. 〈사진〉

이번 설명회는 광주시와 (사)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가 2019 광주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 지정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써 전남대병원을 비롯한 지역 6개 의료기관과 관련 업계 등이 참여했다.

전남대병원은 이번 설명회를 위해 성형외과 조현교 교수를 비롯해 2명의 방문단이 구성됐다.

방문단은 양일간 현지의 닥터셀206 병원과 청양구 인민병원 등 대형병원을 방문하면서 현지 의료인과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병원 소개와 의료실적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청양구 인민병원에서는 심혈관내과 왕원진 주임이 전남대병원 권역심뇌혈관센터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향후 전남대병원을 직접 방문키로 약속했으며, 성형외과의 의료진수와 수술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했다.

이어 홀리데이 인 칭타오 파크뷰 호텔에서 중국



공산당 간부와 기업인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B2B 미팅에서는 전남대병원의 규모와 시설, 의료수준에 대한 영상홍보시간을 가졌다. 또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높은 미용 성형 뿐만 아니라 재건 성형 등 중증 성형 기술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전남대병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칭다오시 의료기관과의 의료협력 및 교류 증진의 기틀을 다졌으며, 전남대병원의 위상제고의 기회도 가졌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청연한방병원, 우즈베크서 의료관광 설명회



청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은 최근 우즈베크스탄 타슈켄트 롯데시티호텔에서 개최된 의료관광 설명회에 참여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내 총 9개 기관(국내의료기관 8개·유치업체 1개·지자체 1개)이 참여했으며 현지 의료관광 에이전시, 의료기관, 환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청연한방병원 이은지 원장은 B2B 상담과 프리젠테이션에서 한국에 소재한 청연 본원, 카자흐스탄 알마티/오스케멘 청연, 19년 우즈베크 한의진료센터 운영 및 20년 타슈켄트 청연 진출 계획에 대해 소개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상무스타치과병원, '광주시장상' 수상



상무스타치과병원(대표원장 김은규)이 광주장애인정보보호협회가 주최한 제16회 광주광역시 장애인정보화 '한마음 축진결의대회'에서 '광주시장상'을 수상했다. 상무스타치과병원은 애항심과 봉사자세로 지역사회 발전을 적극 노력했으며, 장애인 정보화 축진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은규 대표원장은 "병원이 성장하면서 사회적 책임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기존 복지시설에 대한 돌봄 활동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대상을 더 넓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